

서평 〈종교없음〉

교회의 사명, 무엇인가

서평 부탁은 받을 때마다 약속하고 곧바로 후회하는 일이다. 책을 읽는 것은 즐거운 일이지만 독자들을 위해 그 책을 평가하는 일은 또 다른 일이기 때문이다. 화이트의 『종교 없음』은 오늘날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꼭 필요한 책이다. 교회에 나가지 않는 가나안 성도들이 늘어나고, 진학과 취업의 치열한 경쟁 속에 잠시 숨 쉴 틈도 없는 다음세대가 신앙 생활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정규직 일자리를 찾기도 바쁜 젊은이들에게 교회 출석과 신앙생활은 사치로 여겨지는 실정이다. 그 결과 한국교회는 서구 교회처럼 점차 노령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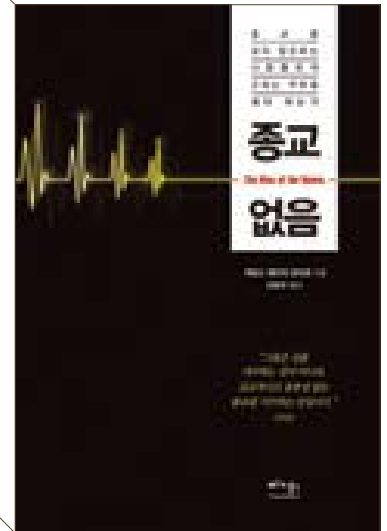
화이트의 『종교 없음』은 한국교회와 비슷한 증상을 겪고 있는 미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쓴 책이다. 종교 유무를 묻는 설문에서 '종교 없음'란에 표기하는 미국인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현실이 이 책이 문제 삼는 출발점이다. 이 책의 진단에 따르면 종교에 대한 관심조차 사라지고 있는 것이 무엇보다 큰 문제이다. 그 결과는 미국 개신교인의 감소이다. 화이트는 그 원인을 1990년대 이후 불어닥친 세속화의 바람에서 찾는다(25면). 그는 무종교인의 수의 감소가 미국만의 현상이고 전 지구적인 현상은 아니라고 위안을 삼는다(32면). 하지만 한국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수가 감소하고 있기에 이 책은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준다 할 수 있다.

이 책에서 화이트는 미국교회의 위기와 그 원인을 진단하면서 그 원인에서 도리어 미국교회 회복의 단서를 발견한다. 그에 따르면 미국 무종교인들은 영적 관심을 버린 것이 아니라 조직화된 형태를 지닌 특정 종교를 버린 것이기 때문이다(41, 46면). 화이트에 따르면 기독교라는 특정 종교를 버린 많은 미국인들이 그들의 청소년기를 보냈던 시기는 미국 기독교가 정치권과 공개적으로 깊은 유착관계에 있던 1990년대이다(60면). 그에 따르면 그들은 돈과 권력, 규율과 정치에 집착



이경직 서울대학교 철학과에서 학사,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독일 Konstanz 대학교에서 철학박사 논문을 썼다. 백석대학교에서 목회학석사, 신학석사, 신학박사를 마쳤으며, 현재 백석대학교 대학원 교무처장으로 서 조직신학을 강의하고 있다. 저서로는 『Platons Raumbegriff』, 『기독교와 동성애』, 『기독교철학의 모색』, 『순교자 유스티누스의 생애와 사상』, 『플라톤과 기독교』가 있고, 공저로는 『신앙과 논리』, 번역서로는 『사랑의 모델』, 『헬레니즘 철학』, 『철학자 예수』, 『공간 개념』, 『기독교철학』, 『칼뱅』 등이 있다.

제임스 에머리 화이트 저 | 김일우 역
베가북스



하여 기독교 신앙을 정치적 우파의 이념으로 만들어 버린 미국 기독교에 대해 실망했다(62-66면). 그 결과는 “X세대 중 21퍼센트와 베이비붐 세대 중 15퍼센트가 스스로를 “종교 없음”난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표시”한 2012년 설문조사로 나타났다(75면).

화이트는 1990년대 이후 미국사회가 기독교 이후 사회로 들어갔다고 본다. 기독교적 세계관과 기관이 “사회와 문화의 여러 부분들”을 지배하는 시대가 지난 셈이다(76-77면). 기독교 신앙은 개인적 취향의 대상이 될 수는 있었지만 공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영향력을 잃어버렸다(78, 80면). 화이트는 많은 이민자들이 미국에 들어오면서 그들의 종교들도 가지고 왔기에 미국이 기독교사회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기독교 이후 사회로 들어갔다고 여긴다(83-85면). 그 결과 그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나는 하나님, 가족, 그리고 맥도날드를 믿는다. 하지만 사무실에서는 이 순서가 거꾸로 뒤바뀐다.”고 말한다(80면). 미국인들은 죄라는 신학적 용어를 회피하고 질병이라는 심리학적인 용어를 선호하게 되었다. 도덕은 개인의 선택의 문제이지 더 이상 보편적 구속력을 지니지 못한다(102-103면). 화이트에 따르면 미국 사회가 기독교적 확신을 더 이상 후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개인의 신앙을 유

지하는 일은 매우 어려워졌다(79면).

화이트는 미국이 기독교 이후 사회로, 즉 세속화 사회로 진입한 데서 무종교인이 증가한 원인을 찾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실정은 달라 보인다. 한국은 기독교 사회를 이룬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도리어 한국 교회는 세속화된 사회 속에서 신앙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한국교회의 위기는 한국 교회의 대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시작되었다 볼 수 있다.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발언권이 정치, 사회, 문화 등 각 영역에서 커진 것 자체는 좋았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를 변화시킨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한국 사회의 세속화 물결이 한국 교회로 들어온 측면도 있다. 그 결과 한국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기 시작했으며 그 때부터 한국교회의 위기가 찾아왔다 할 수 있다. 최근 개혁주의생명신학 운동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복음의 본질이며 신학은 단순한 학문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주는 복음이라고 주장하는 까닭도 바로 한국교회의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데 있다.

화이트도 교회가 세속화의 흐름에 휩쓸린 데서 위기의 원인을 찾는다. 그는 교회라면 문화의 인정을 받

는데 목을 매기보다 문화를 변혁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지적한다(114-115면). 그런데 그에 따르면 미국 교회는 세속화 사회를 향해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일보다는 기존의 신자들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데에만 관심을 둔다(126면). 미국교회는 길 잃은 영혼들을 찾아 구원해야 하는데도 제자들을 돌보는 일만 한다. 그 결과 미국교회는 신자들을 위한 예배에만 관심을 두고 복음 전도는 등한시 한다(135-136면). 화이트에 따르면 예배의 목적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 개인의 필요와 욕망을 채워주는 것이다. 많은 신자들이 자신의 영적 나르시즘을 충족시켜 줄 예배를 제공해주는 교회를 찾아 움직인다(132-133면). 그 결과 수평이동에 의해 성장하는 교회는 있지만 개종에 의한 성장은 거의 드물다(122-123면).

화이트는 무종교인들이 영성에 대해 무관심하지 않다는 사실을 미국 교회의 위기 극복의 통로로 삼는다(86-87면). 그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는 마음이 열려 있지만 교회는 싫어한다.”(130면) 화이트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대위임령을 따르려면 기존의 편안함과 타성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에 따르면 복음전도가 최우선이어야 하며 교회로 인도된 영혼을 제자로 삼는 일은 그 다음이어야 한다. 복음전도는 기존 신자들에게 불편하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화이트는 그리스도인이 “대의를 위해 스스로 죽어야만 한다”고 한다(126면). 화이트에 따르면 예배와 양육을 통해 자신의 영적 욕구를 채우는 데에만 관심을 두는 자기중심적 신앙이 죽어야 교회가 살아난다(126, 131, 139면). 기존 신자들이 복음 전도를 위해 드는 비용과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교회의 회복이 일어난다(137면). 복음전도는 교회가 소비주의라는 세속화의 물결에 맞서는 일이기도 하다(140면).

화이트는 미국인들이 세속화 사회가 줄 수 없는 것을 교회가 주기를 기대한다고 지적한다(146면). 그것은 복음이다. 그에 따르면 1960년대 미국사회에서 크게 효과를 보았던 주일학교 등록 캠페인이나 전도대

회는 기독교 이후 사회에 진입한 미국사회에서는 더 이상 효과가 없다. 1960년대에 교회 출석을 권유받던 미국 사회 구성원들은 기독교의 기본 신념을 이미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화이트의 조사에 따르면 지금 미국인들 중 복음전도의 대상은 기독교의 기본 신념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스도와 무관하게 사는 사람들이다(151-152면). 따라서 복음전도는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서는 안 되고 지속적인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153면). 화이트는 이 과정을 “데이트와 연애라는 과정을 거쳐 결혼이라는 실제 사건으로의 발전”에 비유한다(154면). 그러하기에 복음전도는 이전보다 더 힘들고 희생을 요구하는 과정이 된다. 기존 신자들의 전인격적인 헌신과 희생이 없이는 복음의 진정성이 드러나지 않는 셈이다. 화이트가 교회가 “인큐베이터와 같은 수고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154면).

화이트의 이 지적은 한국 교회의 일회성 노방전도가 예전만큼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최근 한국교회에 소개되고 있는 관계전도도 이런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 관계전도는 불신자가 복음전도의 여러 과정을 거쳐야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데로 나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화이트에 따르면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복음전도의 선두는 복음에 대한 직접적인 선포가 맡았다.”(165면)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는 사람들에게 소속감과 신뢰를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복음전도의 앞장에 섰다. 그러나 2010년 이후부터는 무종교인의 관심을 사로잡는 대의명분이 복음전도의 첫 단계가 되었다(165-166면). 화이트에 따르면 “무종교인들은 종교 조직들이 돈과 권력, 법과 정치에 지나칠 정도로 관심을 갖는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166면), 교회는 지역사회와 가난한 사람들을 돕음으로써 사회에 유익을 주고 “공동체의 유대감을 강화시켜 준다”는 확신을 무종교인들에게 줄 필요가 있다(166면). 이는 기존 신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개인적으로 순종하고 희생적으로 섬길 때에만 가능

한 일이다(170면). 개혁주의생명신학 운동이 7대 실천운동 가운데 나눔운동을 포함시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화이트에 따르면 “세속주의가 정착되고 있는 가운데 미지근한 종교는 거의 가치를 발휘하지 못한다. ... 양심을 사로잡는 것이 곧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다.”(203면) 그에 따르면 무종교인들이 증가하는 세속화 시대에는 “확신이 넘치며 그 메시지가 명쾌하고 그 내용들이 실제적이며, 강력한 도전을 던지는 바로 그런 목소리”가 필요하다(203면). 교회가 십자가가 21세기 사회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섬김과 희생을 통해 선포할 때 무종교인들에게 믿음과 회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204-205면).

화이트는 무종교인들이 그리스도의 문화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 기독교 지성의 개발이 중요함을 강조한다(209면). 그에 따르면 기독교 지성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비추어 생각하는 일을 한다(210면). 그러할 때 비로소 복음전도는 십자가 신앙을 세속적 세계관의 소음에 시달리는 무종교인들의 귀에까지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213면). 또한 기독교 지성은 지적 유희나 사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의 삶이 세속적 삶과 어떤 본질적 차이를 드러내는지를 보여주는 역할까지 나아가야 한다(217면).

화이트에 따르면 이는 복음전도자의 태도에도 영향을 준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을 대립적 사고의 틀에서 보는 ‘논쟁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세속적 인간과는 달리 상대방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는 공손함을 보여줄 수 있다(228-231면). 기독교 지성은 논쟁에서의 승리만을 목표로 하는 ‘기독교계의 전투권’이 아니라 비언어적 전달에서도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공손하게 전하는 신사이어야 한다. 화이트에 따르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고 말하는 사람들 사이에” 눈에 보이는 사랑이 오고가야 한다. 교회의 연합과 일치만이 그리스도인들이 성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임을 세상에 알릴 수 있기 때문이다(235

면). 그러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성찬의 빵에 함께 참여”하는 친구들이 될 수 있다(239면). “서로에게 보여주는 사랑”이 최고의 변증이라고 웨퍼가 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242면). 개혁주의생명신학 운동이 회개와 용서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를 지향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이렇게 서로를 용서하고 품는 공동체이어야 무종교인들을 환영하는 환대의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다(254면). 이를 위해 교회는 교회에 처음 오는 사람들을 위한 물리적이고 정서적이고 영적인 환경을 잘 조성해야 한다. 교회의 모든 곳이 청결해야 해야 “교회가 섬기는 하나님이 제대로 대접을” 받는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260-261면). 그러하기에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의 환경을 교회를 처음 오는 사람의 눈으로 낮설게 보면서 점검하는 일이 필요하다(262면).

화이트는 우리가 매일 접하는 현실의 교회가 이러한 이상적 교회상에서 떨어져 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교회가 사명을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명이 우리를 소유하고 있다.”(284면) 현실의 교회를 이상적인 교회로 만들어가시는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을 뿐이다. 따라서 교회가 현실의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는 일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절대 필요하다. 개혁주의생명신학 운동이 기도와 성령운동을 강조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화이트의 『종교없음』은 우리에게 패배의식을 안겨주는 책이어서는 안 된다. 도리어 교회의 사명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오늘날 우리의 삶과 문화 속에 어떻게 적실성 있게 선포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계기로 작용해야 할 것이다. 한국교회의 위기를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자신의 문제로 여겨 하나님 앞에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꼭 읽어야 할 책이다. 